

朔寧崔氏世譜重刊序

惟我朔寧崔의 族譜가 萬曆戊子年을 爲始하여 哲宗 戊午에 이르
기까지 四五回에 걸쳐 作成되었으며 以後 九十七載間 二回의
譜가 續成되었으나 均一圓滑히 登載되지 못하였고 庚寅에 이르
러 다시 經營하였으나 六一二五事變으로 未遂에 그쳤다가 甲午
年에 다시 發議되어 僉議循同으로 通禮公派를 網羅 合譜하기로
하였으니 이는 前代譜例에 未曾有의 蕩平譜이다 그러나 그 後
二十三年이 經過한 今日에는 더욱 繁衍하여 圍園花樹가 東風佳
節을 만난듯 類例가 드문 南省의 巨族으로 今年에 다시 世譜續
成을 經營하게 되니 繼世의 事業이며 空前의 巨役입니다 後孫
의 昧事와 殘力으로 重任을 完遂함에는 많은 隘路가 있겠으나
一面으로 生覺하면 蝨嘶의 振振繁盛한 其靡不億의 子姪이 拔乎
其萃함에는 積德累仁하신 先祖 文靖公을 비롯 落南先祖인 通禮
公이 子孫萬代를 爲해 遠大한 餘蔭으로 今日을 이룬 業蹟을 追

慕할때 賢祖를 모신 矜持와 聲徽를 이어받은 責任 正말 重且大
함을 느껴 現實打開의 腐心은 즐거운 悲鳴이라 할까 原來 族譜
란 昭穆을 明記로 次序整然하게 一目瞭然을 根基로 함은 贅言
을 不要하며 敦宗睦族과 親疎遠近이 條理井井함에 孝悌之心이
油然而生함은 勿論 萬殊一本의 原理로 千枝萬葉이 同根에 歸着
되나니 이어져 嚴正한 教訓과 神聖한 法則이 아님니까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茂盛하고 根源이 멀면 흐름이 長遠함은 萬古不
易의 眞理이니 吾崔의 根源이 長遠함은 不言可知이며 賢祖의 血
統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寤寐間戰兢으로 祖先은 追慕하며 先烈
을 繼承하며 親疎를 莫論하고 敦厚嫻睦을 相互信條로 祖先의 均
視子孫하신 恩澤을 暫時라도 忘却하지 말고 相扶相助의 美風을
涵養하여 千秋萬代에 遺風餘韻을 繼々承々하기로 勤々孜々할것을
吾宗老少僉位前에 進言하는 바이다 그리고 先祖의 偉蹟을 闡
揚함은 後孫의 誠意如何에 있는 바로다 不肖한 成石으로 敢히

僭濫을 무릅쓰고 序文에 代하는 바입니다

丙辰八月上澣

後孫

國會議員

崔成石謹識

戊子譜序

昔李守素通姓氏學虞世南與論人物嘆曰以為人物志可乎氏譜之興其來尚矣惟我曠嶸崔粵自麗朝世多聞人人我朝至政堂文靖公益大鳴矣政堂夫人乃四佳徐相公居正之妹四佳於兄弟年最幼學業之成專賴先祖獎導一家之中自作師生義分固出尋常矣政堂之卒四佳實撰碑文而乃謂赫奕世胄不必依樣時俗多錄世系只書三世而止爾後人多言其太略四佳亦悔之而碑已樹無如何遺命家人令其碣文亦至曾而止以實其悔嶼且緣門運不幸政堂之後數世短促碣文之外舊譜無存在我雲仍輩每當尋究世系過十餘世以上未的分派之所自茲豈非大欠事乎余嶼若是或詢於諸戚屬或問於連姻家采其明白詳悉者作為此譜以示後昆凡我宗人思堂構之傳業各自飭勵念荷葉之同根更加敦睦則餘慶益遠立揚可待我先靈其不曰余有後乎區區老物之望庶幾至此而塞矣

龍集戊子夏嘉善大夫前漢城府左尹崔衍謹識

朔寧崔氏世譜卷之甲編上

崔天老

高麗門下侍郎平章事

崔瑜價

高麗門下侍郎平章事麗史價字作賈後孫道源碑作價今從之麗史明宗二十年庚戌爲國子監大司成樞密副使二十四年以參知政事引年乞退時人美之明宗庚戌即宋光宗紹熙元年二公爲遠祖而中間世系不傳墓在高陽云

一世

崔善甫

親禦海軍郎將

(친역모군랑장)墓는失傳이라正言洞典書公의墓後에雙封이似是而未詳이라

二世

子忠

徵仕郎洪造署丞

(중사랑홍조서丞)贈兵曹判書(중녕조판서)墓는朔寧馬場面王表峴陵谷申坐에

三世

子潤文

戶曹典書(호조전서)贈右贊成(중우찬성)墓는馬場面立石里正

言洞亥坐에有碣하다配는 贈貞敬夫人成從魚氏요父는三司左尹伯游요祖는典客寺令德이니曾祖는郎將遵亮이요外祖는監察이라 贈贊成(중찬성)延安金祐요有四男하다 贈貞敬夫人 氏니有 一男三女라

四世

子士昂

文成川府使

子士弘

宣節將軍

子士柔

字는徽之이요

洪武壬子生이니己巳에生進하고太宗壬午에文科로歷翰苑하다司經獻納司藝知承文院事直寶文閣乙亥八月十七日에卒하니壽八十四 贈領議政寧原府院君墓王表峴署丞公墓下에坤坐有碣文靖公

五世

後無

後無

子崇

軍器副正墓曾祖墓左有碣 配 李氏

子衡

吏參墓考墓左岡成坐 配貞夫人 柳

六世

子永清

仁川人僉知

子永澍

兵議墓通津大波面平章山壬坐有碣 配雙封

女李仲孫

豐山人主簿

子秀賢

子秀俊

七世

女沈元

後無

子秀賢

子秀俊

子秀賢

子秀俊

子秀賢

子秀俊

承旨公派

朔寧崔氏世譜甲編上

跋

前譜之修于今未滿二十五載而其間波亂甚多中以六、二五思想亂魄風乍過後宗族中或有滅門失其父兄子妹移其鄉住畿湖者不知某派之爲誰某族之何住其於敦宗睦猥之道倘如何哉憂其移散相見不知違在乙卯春通禮公派京鄉諸宗深商豎議秋九月設於露濡齋翌年八月告功訖噫以北宗族無可奈前則嫌庶不願單今則蕩平為主廣開門而收單何意思入之族間或有之可勝惜哉余以族無似忝修校之任而蔑學疎才差舛之責固所難追不勝僭越然此譜之修上尊祖先追慕之誠下別宗支敦睦之情完然一家之親良可幸耳大抵合則易分分則易合人之常事國亦是也吾宗僉君子一人之孫常想一木之根則雖百世之後不愆不忘之心悠然出矣益加勉旃後日團合之地幸甚

丙辰中秋上澣

後孫在宇謹跋

跋

惟我朔寧崔氏가 得姓以來 戊子譜、癸卯譜、庚寅譜、己巳譜、戊午譜、丁未譜、丙寅譜、甲午譜、丁酉大同譜、九回の 世譜로 遠近諸族을 收拾하여 왔노라

丁酉大同譜 以來 近二十年間 戰雲속에서 헤쳐나온 諸族들의 生卒、墓地를 收拾키 爲하야 乙卯 四月 五日 花樹會 席上에서 諸宗들의 異口同聲으로 收族하자는 歡聲裏에 世譜를 起成키로 可決되여 同年 九月에 露濡齋에 設廳하여 丙辰 八月에 完成키로 丙辰譜라 呼稱케 된지라

諸宗의 總意에 依하여 甲午譜規와 如히 嫡庶區別없이 朔寧崔氏라면 一根千枝萬花의 同族心으로 同一한 譜規로 登載하며 一致團結하여 崇祖愛族下에 洋洋한 前途를 開拓하자는 決意로 丙辰譜를 起成케 된지라 諸宗들이여 舊習을 一掃하고 날로 改革되

어가는 文明을 받아가며 相扶相助로 勸學、勤勉하며 誠心으로 賢祖의 美德과 名聲을 四海에 宣揚케 하며 後孫들의 繁榮함에 全力을 傾注하여 如天地無窮으로 吾崔의 發展을 祈禱하노라

丙辰 八月 上旬

後孫 成海 謹跋

跋

夫譜는 明昭穆하고 收宗族하여 合為一帙이니 無敦睦之美德이면 何謂譜乎 아 惟我朔寧之崔가 平章公以來로 十餘次譜牒을 하온바 敦宗睦族之誼에 無欠하니 吾宗君子는 先祖의 遺志를 繼承하여 肖子賢孫이 敦睦의 美德을 永久히 遵守하면 先祖의 心德을 報答하고 子孫의 敦睦을 養成함에 有補萬一云爾라

丙辰 八月 日

後孫 成玉 謹識